

수간호사가 갖춰야 할 역량과 리더십

간호사 잠재능력 이끌어내는 관리자 돼야

뚜렷한 목표 세우고 '비전 일기' 써보라

“수간호사는 긍정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병원간호사회는 ‘승진수간호사 업무능력향상’ 교육을 열어 승진 1년 미만의 수간호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공유하고 조언했다.

△공정한 인사평가 역량 갖춰야= 박광옥 순천대 간호학과 교수는 “수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관리자, 상급자가 된다는 것”이라며 “상급자의 의무와 책임 중 하나가 인사평가를 통해 간호사들의 능력에 따른 공정한 처우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평가는 인간적 배려와 주관을 배제하고 조직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실시돼야 한다”면서 인사평가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주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상시 수집하라. 사람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지식, 성격, 근무태도, 업적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방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모든 상황을 객관화해서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잠재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가가 돼야 한다.

박광옥 교수는 “수간호사는 중간관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인재양성은 비록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열정의 리더십 발휘= 김윤태 체인지컨설팅 대표는 수간호사들에게 리더로서 ‘열정의 리더십’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윤태 대표는 “열정은 지속

적으로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폭제가 된다”면서 “리더는 업무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열정이 있어야 하며, 조직원들에게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열정은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하고 싶고 즐거워하는 일을 할 때 생기고 강해진다”면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10년 뒤 나의 모습을 상상해서 쓰는 ‘비전 일기’를 써볼 것”을 주문했다.

이때 목표는 반드시 크지 않아도 된다. 작은 목표 하나하나가 업무를 추진하는 동력이 된다. 일의 가치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통해 결정된다. 일을 대하는 자신의 자세를 바꿔 일을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병원간호사회 임상간호학술대회

우수논문 7편 시상 ... 포스터 25편 전시

병원간호사회(회장·박영우)는 제32회 임상간호학술대회를 2월 27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열었다.

2016년에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진행한 연구 중 우수논문 7편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우수논문 포스터 25편이 전시됐다.

△최우수상(상금 150만원) = ‘척추측만증 수술 후 환자의 복부 불편감 실태조사’(서울아산병원 이미지 외 5인)

△우수상(상금 70만원) = ‘내과 환자의 섭취량/배설량 측정법 비교 연구’(세브란스병원 함경희 외 10인)

△장려상(상금 50만원) = ‘간호 근무환경,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이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삼성서울병원 김주이 외 1인) ‘베노중재 프로그램이 뇌졸중 재활 대상자의 잔뇨량, 도뇨횟수, 배뇨 불편감, 요로감염에 미치는 효과’(분당서울대병원 송영애 외 6인) ‘수술실 간호사의 혈액매개감염 관



제32회 임상간호학술대회

련 지식, 위험지각과 감염예방행위’(건양대병원 김남이 외 1인) ‘임상간호사의 고위험 병원체 감염 환자 간호의도 영향 요인’(베스트병원 김현지 외 1인) ‘환자가족이 자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간호서비스 만족, 병원서비스 만족과 병원 재이용 의도 관계연구’(예수병원 서향란 외 7인).

이날 발표된 논문은 ‘임상간호연구’ 제22권 1~3호에 실렸다.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khna.or.kr) 임상간호연구 코너에서도 볼 수 있다.

논문 발표에 앞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간호연구의 방향과 개인정보보호’ 주제로 박현애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특강을 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해외긴급구호대 의료지원팀 구성

복지부, 8개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해외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 대표로 현지에 파견할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료지원팀’ 선발·구성을 위해 8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대병원, 명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북대병원, 한림대 의료원이 참여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KDRT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 추천,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팀 선발·구성 및 파견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팀을 선발·구성해 미얀마 태풍, 아티 지진, 필리핀 태풍, 시에라리온 에볼라, 네팔 지진 등 해외재난 지역에 파견해왔다.

그러나 의료지원팀이 해외긴급구호에 관심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

다보니 예고 없이 발생하는 해외재난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인력풀로 의료지원팀을 꾸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40개 재난거점병원 중 8개 기관의 동의를 얻었다.

복지부는 의료지원팀 활동이 국제기준에 따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세계보건기구 응급의료팀(WHO EMT) 기준에 맞게 대폭 개편했다.

또한 의료지원팀이 외교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함께 하는 이동식병원 운영·전개 훈련, 의료지원팀-구조팀 합동 모의훈련, UN 지진대응 훈련, WHO EMT 연례회의 등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인/사

경기도 양주시보건소 원정림 소장

경기도 양주시보건소 소장에 원정림 보건사업과장이 임명됐다.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소장을 맡았다.

원정림 소장은 1981년 적십자간호대학(현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근무했다.

1983년 공직에 임명해 양주시보건소에서 줄곧 근무하며 방문보건



팀장, 진료지원팀장, 보건사업과장 등을 지냈다. 경기도보건간호사회 이사를 지냈다. 2004년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가정전문간호사과정을 수료하고,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제주도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고인숙 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소장에 고인숙 제주도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장이 임명됐다. 1월 13일자.

고인숙 소장은 1983년 제주한라대를 졸업하고, 탐라대(현 제주국대)에서 스포츠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서귀포시보건소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계장, 제주도 보건위생과 건강관리담당 및 질병관리담당, 여성가족과 아동보육담당 등을 지냈다. 2007년 5급 사무관으로 승



진했다. 고인숙 소장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2017년 3월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은 원정림 소장과 고인숙 소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종일 간호부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사장·김철수)은 신임 간호부장으로 김종일 전 세브란스 재활병원 간호부장을 선임했다. 3월 3일자.

김종일 간호부장은 연세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동대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 강서구간호사회장, 한국항공우주학회회 부회장, 강릉원주대 및 제주한라대 간호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세브란스병원



간호교육부장, 외래응급실부장을 역임했다. 김종일 간호부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간호부장으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게시판

보건간호사회 총회 3월 17일

보건간호사회(회장·양순옥)는 제4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17일 오후 1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임원선거가 있으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02)525-7318.

가정간호사회 총회 3월 17일

가정간호사회(회장·윤영미)는 제24회 정기총회를 3월 17일 오후 1시30분 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제2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02)2267-5688.

노인간호사회 총회 3월 18일

노인간호사회(회장·이금재)는 제13회 정기총회를 3월 18일 오전 10시 가천대 길로빌센터 100호에서 개최한다. 임원선거가 있으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010-6385-2401.

마취간호사회 총회 3월 18일

마취간호사회(회장·정계선)는 제39회 정기총회를 3월 18일 오후 6시 서울여심프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010-3103-0748.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더 JUMP!

20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